

화성, 전국 첫 ‘자살예방 핫라인’ 설치

정명근 화성시장, 1호 결재 서명
시민일상 지키는 필수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연계 24시간 상담 지원

정명근 화성시장이 1호 결재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선택했다.

화성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5명으로, 전국 25.7명보다는 낮은 수치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신건강상담 핫라인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자살예방 핫라인은 선거기간동안 시민의 다양한 삶을 청취하고 자살 위기에 놓인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살리겠다는 대시민 정책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자살예방 핫라인은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이 직접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기존 자살예방 상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필요할 경우엔 시장과의 면담까지도 가능한 긴급 구제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자살예방센터에 핫라인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을 추가로 배치



정명근 화성시장이 1호 결재로 지자체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선택했다

화성시 제공

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전화와 연계한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또 자살 고위험군, 중증 정신질환, 중독, 아동학대 등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경찰, 소방서와 연계하는 등 대상자의 상황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

들이 늘어나고 상담인력이 부족하면서 현재 기준 약 170명의 대기자가 상담 신청부터 실제 상담까지 약 한 달 반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핫라인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살 없는 생명의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성남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용

마을회관·경로당·교량 등
소규모 생활밀접 시설 대상
20일까지 동행복센터 접수

성남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다.

점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



지난해 6월 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파주시, 관내 돼지 농가 폐수 정화 방류시설 특별점검

장마철 축사 주변 수질오염 예방
27곳 대상 분뇨 무단방류 등 점검

파주시는 7월 한 달간 관내 돼지 농가 중 폐수 정화 방류 시설 전체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축사 주변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는 합동 점검반(3개반 4명)을 편성해 ▲처리시설(정화 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가축분뇨 무단 방류 여부 ▲가축분뇨(퇴비) 아직 방치 여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 대상 외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사육 운영자의 축사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가 장마철 대비 폐수 정화 방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하

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자체 점검 및 퇴비 적정 관리를 통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연식 기자

쌀 소비 촉진에 양주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고

박도영

양주농협 조합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재화가 바로 쌀이다. 쌀은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필수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해왔고, 이에 따라 쌀값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로 식습관 변화를 들 수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6.9kg으로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밀가루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고, 육류 등 쌀 대체 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쌀 소비량 감소의 한 원인이다.

또한 쌀 소비량이 많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공깃밥의 양이 일률적으로 적어진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우리는 밥에서 힘이 난다고 하여 그릇 위로 수북하게 담아 먹는 고분밥 문화였으나, 쌀 부족이 심했던 1970년 중반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담은 그릇의 크기를 강제로 줄인 아픈 역사가 있었다. 지금도 식당에서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의 크기도 그때 정해진 것이다.

한편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쌀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쌀은 유일하게 전 국민이 자급할 수 있는 곡

물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20년도 기준 19.3%로, 나머지는 80.7%는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의 밀 수출 중단 등 생산국에서 곡물을 무기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농업이 생명창고인 이유다.

이렇게 쌀 소비 감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양주골쌀 소비촉진운동 참여가 절실하다. 농업인 없는 국가나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소비자가 없어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는 불안을 없애는 일종의 보험으로 안심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양주시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양주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 첫째, 출향 인사나 친지들에게 양주골쌀 보내기 운동을 했으면 한다. 현재 농협몰에서 양주골쌀을 구입하면 택배비가 무료다. 둘째,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용 선물이나 대고객 홍보용품으로 양주골쌀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관내 식당에서는 양주골쌀로 지은 밥을 제공했으면 한다. 넷째, 가정에서는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아침밥 효과라고 하여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의 수능 성적 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섯째, 사회관계망(SNS)에서 양주골쌀을 해시태그 하여 홍보했으면 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을 살리는 데는 거창하게 큰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돌은 없는 수고 정도면 농업인은 늘 감사한 생각을 한다.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또한 제2의 농업인이라는 생각으로 양주골쌀 소비에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신중년 남양주시민을 위한 ‘5060 해방데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5060 신중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5060 해방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5060 해방데이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로 돌아가는 날’을 콘셉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인 흥천 힐리언스 선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테라피, 목공 체험, 소풍 강연 등 잠시 일상을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워데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기수별 모집인원은 20명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신중년(1953년~1973년생) 세대면 누구나 가능



하며, 오는 6일부터 남양주 평생학습 포털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평생학습과 인생다모작팀(031-590-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광주시, ‘찾아가는 결핵 무료 검진’ 실시

광주시는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 및 결핵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결핵 조기 발견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결핵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내 장애인,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 거주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동 흉부 X-ray 촬영 ▲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시설 대상 무료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검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검진 인원 50명 이상 및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오는 7월 5일까지 광주시보건소 결핵실(760-2454)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관내 65세 이상



광주시보건소가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어르신은 보건소 및 초월보건지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매년 1회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미수 보건소장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철저한 결핵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백 기자